

다시 집으로

- 이창래 에세이 -

강치범 번역

어머니가 약물이나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 전자 펌프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어머니의 잠자리를 거실로 옮겨드렸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처하는 이층 침실로 그 기구를 밤이고 낮이고 올려가고 내려오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 펌프는 바퀴가 달린 금속 막대기에 붙어 있었고 어머니는 어디로 가나 그것을 끌고 다녔다. 어머니가 주로 다니는 화장실이나 부엌으로 통하는 바닥에는 타일이 깔려 있었고 바퀴가 그 타일 위를 지날 때 연속적으로 내는 덜커덩거리는 소리는 온 집안에서 들을 수가 있었다. 때로는 몇 발자국도 못 가서 그 소리가 멈추곤 했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가쁜



USC 치과대학 졸업, 창조문학, 미주문학 수필 등단, 미주한국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회원.

숨을 고르거나 혹은 몸의 균형을 잡느라고 그랬다. 그럴 때면 집안에서 누가 무얼 하고 있는지 간에 그 침묵의 불길함으로 인해 하던 일을 즉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점심이나 저녁을 준비하느라 주로 부엌에 있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고기 다듬는 칼을 손에 쥐고 어머니의 오래된 노란 행주 치마를 목에 두르고 도마를 마주하고 서 있을 때였다. 그때 닥쳐온 갑작스러운 고요에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고기를 자르고 다지던 일을 멈추고 나는 번쩍거리는 칼날만 멍히 쳐다보고 있었다. 결국 목안이 트이면 어머니는 “괜찮아”라고 소리치시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면 바퀴가 내는 까죽까죽하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때서야 나는 요리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고 우리 집 분위기는 정상을 되찾고 어둠을 헤집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해 음식 장만을 했다. 어머니가 처음 일충으로 옮겨왔을 때 음식을 잡수시기는 했지만 아주 적은 양이었다. 음식을 먹고 싶은 의욕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맛이나 보는 정도였다. 중요한 것은 모두 함께 부엌 식탁에 둘러앉아 한 가족임을 확인해 보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난로 가까이에 놓여 있는 자신을 위한 특별한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시곤 했다. 나는 어머니와 마주앉고 나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아버지와 여동생이 자리했다. 그리고 중앙에는 내가 만든 음식을 뽐뽐이 차려두었다. 소위 말해 대구 매운탕과 불고기라 불리는 음식은 내가 어릴 때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백 번도 넘게 만들어 준 것이었다.

내 나이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내가 뉴 햄프샤에 있는 사립학교에 다니기 위해 집을 떠날 때까지 우리 가족은 이 집에서 십년 동안을 함께 살았다. 어머니는 지금 상태를 일컬어 우리 집은 내가 엑스터로 떠나기 전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그 학교를 졸업

한 것을 어찌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내가 놀랄 정도였다.

내가 그 학교를 가게 된 것도 나의 성격을 바꾸기 위한 어머니의 숨김 없는 계획의 일부였다. 어머니는 내가 자신의 성격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셨다. 나는 영리했고 충분한 능력도 있었지만 외부 간섭 없이는 쉽게 게을러지거나 멍해져버렸다. 그 이름난 학교는 —사실 우리는 그 학교에 관해 한 가지도 제대로 아는 게 없었지만—내가 도전하고 싶은 것을 잘 파악해 대처해 주었다. 과연 어머니는 옳았다. 그리고 내가 그 학교에 다니는 동안 여러 번 좌절을 경험했다. 그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집을 떠난 것이 어머니에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 몸이 쇠약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멀리 보내야 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지금은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여동생은 뉴욕에 있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아버지는 원래 밤 8시나 9시까지 정신병 환자를 돌보아야 했지만 이제는 오후 4시 반이면 집 앞에 나타났다. 나는 집에서 일 년 가까이 생활해 왔고 어찌면 절망적인 실패로 끝날지도 모를 소설 쓰기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내가 소설 쓰기에 골치를 썩이고 있지 않을 때에는 나는 어머니가 평소에 하시던 일을 도맡아 했다. 장을 보러 가거나 청소를 하거나 세탁을 하는 일반적인 가사일 뿐만 아니라 요리까지도 내 차지였다.

내가 여섯 살인가 일곱 살 되는 해였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 모습을 나는 지켜보곤 했다. 그 일이 나에게서는 일상의 즐거움이었다. 어머니는 부엌은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고 아예 나를 내쫓아버렸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받은 의기양양해 하면서도 받은 한심스럽다는 듯 부엌일은 나를 남자답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의를 주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나가서 친구들과 놀든지 아니면 책이나 읽고

숙제나 하라고 한국말로 쏘아붙이곤 했다. 내가 책도 읽었고 숙제도 끝냈다는 것을 어머니는 이미 알면서 해보는 소리였다. 저녁 때가 되면 어머니가 있는 작고 잘 정돈된 부엌이 아니고는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그때쯤에는 설거지하느라 부엌에서 들리는 식기와 팬이 부딪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온 집안으로 울려 퍼졌다.

나는 부엌으로 살금살금 숨어들어가 어머니 곁에 다가서서 그녀의 엉덩이에 턱을 받치고 어머니의 굽은 팔 사이로 보이는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갈비를 요리 중이었다. 푸줏간에서 잘려진 짧은 갈비뼈가 어머니의 작은 손에 들려 올려졌다. 그 딱딱한 뼈는 마치 비행기 날개 모양을 하고 있었고 연골과 살 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어머니의 칼 날이 닿자 뼈는 고기에서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고기의 하얀 인대 부분에는 뼈가 그냥 붙어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머니는 능숙한 솜씨로 고기를 나비 모양으로 자르고 다듬어갔다. 그 작업은 도마 위에 놓인 고기가 번지레해지고 양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어머니는 살점 위를 얇게 저며서 흠집을 내고 그 틈 사이로 두 손가락 끝으로 집어든 설탕을 조심스럽게 비벼서 뿌렸다. 설탕은 고기를 연하게 하고 달짝지근한 맛을 내게 했다. 어머니는 갈비 한점 한점을 그렇게 처리하고는 깊이가 깊지 않은 넓은 양푼에 그것들을 보관해 두었다. 어머니는 여섯 쪽의 마늘과 생강 뿌리를 칼로 잘게 다지고 약간의 양파를 얇게 썰어서 고기 위에 골고루 발라두었다. 어머니는 손을 씻고 참기름 병을 집어내었다. 잠시 뜸을 들인 후 까만 참기름을 고기가 저장된 양푼에 두어 번 돌려 쳐주었다. 다음에는 약간의 간장을 뿌려주고 어머니는 손으로 고기를 자근자근 눌러주었는데 그때 고기와 뼈가 분리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왜 고기에 뼈를 붙여두느냐고 물었다. 뼈를 붙여둔 고기가 더 맛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양념 묻은 손을 깨끗이 닦았다. 그러나 새끼 손

가락만은 그냥 남겨두었는데 때때로 그 손가락으로 음식 맛을 보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좋은 음식의 진짜 맛은 단번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조금씩 우러난다는 것을 어머니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요리할 때 어머니가 하시던 것처럼 했다. 우선 재료들을 준비하는 데 미늘 다진 것, 붉은 고추 자른 것, 새우 꼬지들을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 도마 곁에 준비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요리법을 남겨두지 않았다. 내가 어머니처럼 요리하는 것은 요리 목록이나 메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마 위에서 풍기는 특유한 음식 냄새를 맡고 익힌 것이었다.

어머니에게 위암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라고 항상 여겨졌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드린 때가 1990년 망년회 때였다. 여동생은 갈비나 닭 요리나 철철 넘쳐나는 한국 음식보다는 간식 같은 담백한 음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조금이라도 맛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우리는 음식을 거실에 있는 유리로 만든 커피 테이블 위에 차려두었다. 나는 그을린 연어 카나페와 두부부침을 한 쟁반씩 준비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즐길 만한 몇 가지 다른 음식도 준비했다. 여동생은 내가 쟁반 배열하는 것을 점검했고 그것들을 보기 좋게 부모님 앞에 진열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얼음으로 채워진 들통에서 샴페인 한 병을 꺼냈다. 어머니는 소파로 옮겨 앉으신 후 낮은 테이블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훑어보시고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하시며 배가 고파 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 말씀이 우리 모두를 기분 좋게 해주었다. 특별히 나에게서는 더 큰 기쁨이었다. 사실 어머니가 언제 배가 고파 내가 요리한 음식을 드셨는지 나는 이제 기억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식사가 시작되

었다. 어머니는 연어구이를 집어 들고 조금 베어 물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잠시 입안에서 굴리다가 혀끝으로 밀어내어 접시에 뱉어버리고 말았다. 삼키는 일도 어머니에게는 구역질 참는 만큼이나 어려웠다.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나 않았나 하고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둘러보았다.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두부와 약간의 치즈 그리고 과일 조각을 입에 대어 보았으나 아무것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시며 음식이 맛있었다고 칭찬하셨다. 나는 이미 허탈한 심정이 되어버렸고 내가 먹던 음식 쟁반을 유리 탁자 위에 갑자기 내동댕이치듯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지친 듯하지만 품위를 잃지 않은 목소리로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물어볼 때까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아무일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지루하게 느껴지던 그해의 마지막 밤이었고 그 밤을 우리가 함께 보냈다는 것이 나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다. 자정 무렵 나는 샴페인을 잔에 따라 어머니에게도 한잔 드렸더니 조금씩 맛을 보시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태도는 장난스러우면서도 밝아 보였다. 나는 어머니가 침대로 옮겨가시는 것을 도와드렸는데 그 후 한 주일도 채 못 되어 어머니는 그 침대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어머니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해결하시는 분이었지만 이민 와 처음 몇 년간은 우리 모두는 별 수 없이 한국 음식만을 먹어야 했다. 결국 나의 투정에 견디다 못 해 어머니는 맛있는 미국 음식 요리법을 배우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이웃에는 키가 크고 머리 색깔이 약간 노란 미세스 처칠이 살고 있었는데 젊고 멋 부리는 이 친절한 여인은 자기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요리법을 어머니에게 가르쳐주었다. 그녀의 두 아들은 쌍둥이처럼 머리를 아주 짧게 깎고 있었고 얼굴색은 창백하며 게다가 울보였다. 그들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

라다녔다. 나는 그들을 무척 좋아했지만 그들과 만나면 몇 분간만 놀아주다가 그들을 살짝 따돌리고 사라져버렸다. 왜냐하면 진짜 흥미로운 일은 그들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하고 있는 요리 강습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미국에서 만든 스웨덴 스타일의 미트볼과 튜나 케서를 그리고 앤젤 케익을 잘 만들기로 메인 주에서 소문난 여자였다. 그녀는 기술을 요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시범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라자니아를 만들기 위해 파스타를 어떻게 겹겹이 채는가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버터를 어떻게 저어서 거품을 만드느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흥미로운 음식 재료들을 선물용 구두 상자들 속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그 속에는 마른 민트라든지 즉석 효소라든지 버섯 죽을 끓이기 위한 크림 등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와 미세스 처칠은 함께 잘 어울렸고 좋아들 했지만 의사 소통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번번이 혼돈스러운 서양 요리 용어가 나오면 더욱 난처해졌다. (콘 비프, 데블 에그) 나는 그런 용어들을 스스로 익힐 수 있었고 카운터에 서 있는 두 여인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언어 소통을 도와주는 것이 즐거웠다. 그러는 도중에 카운터에 음식 양념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간에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첫 번째 자식이면서 아들이었다. 그래서인지 고집불통인 나를 어머니는 지나치게 지켜세워 주었다. 어머니는 내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었고 실지로 자주 그랬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 특별히 아버지와 여동생 — 우리 둘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었다. 나로 인한 괴로움으로 어머니 입술 한쪽이 실룩거리는 것을 보고 내가 죄의식으로 마음이 아팠더라면 그리고 용서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 당시 좀더 깊이 이해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어머니의 고통을 멈추게 하기에는 의도적으로 너무나 바보처럼 굴었고 이해타

산적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것을 매일 강조했고 나의 삶이 어머니의 생존의 이유이기도 했다. 혹시라도 내가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어머니로부터 멀어진다면 어머니는 기꺼이 하나님에게 자기를 마른 가지처럼 쳐서 부셔버리기를 자청하실 분이었다.

전통적 관습이 그랬지만 어머니는 집안의 회계사, 가정부, 세탁부, 교육자, 운전수, 비서, 그리고 요리사였다. 어머니는 나의 첫 번째 농구 코치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여고생 농구 게임은 대단히 인기 있는 관전 경기였다. 어머니는 여고생 국가 대표팀에 소속된 선수였는데 그중에서도 인기 선수였고 득점의 명수였다. 그 대표팀이 전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도 한번 있었다. 나는 그런 사실을 어느 여름 날 토요일에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아버지에게 학교 운동장에 나가 농구 게임을 같이 하자고 졸랐다. 나는 이제 막 오 학년을 끝냈고 다가오는 가을철에 중학교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농구팀에 들어가고 싶었다. 아버지는 여동생과 어머니도 불러 모두 함께 갔다. 우리가 운동장에 도착하자마자 여동생은 그네 있는 쪽으로 달려가버렸다. 그때 어머니가 여동생을 따라 가지 않은 것이 나에게는 무척 못마땅한 것으로 기억되었다. 나는 공을 놓칠 듯 말 듯 서투르게 공을 몰아 골대 가까이 가서 공을 날려 보았지만 그 공은 링 근처에도 가지 않고 튕기어 나와버렸다. 공은 튀어서 아버지 쪽으로 갔다. 그는 공을 서툴게 몰더니 어렵지 않게 링에 집어넣었다. 그는 다시 다른 쪽 골대를 향해 공을 몰아갔다. 아버지는 골대에 던진 공을 다시 붙잡아 어머니에게로 던져주었다. 그때까지 어머니는 줄곧 우리가 하는 짓을 라인 밖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방향을 돌려 다른 쪽 골대를 향해 공을 몰아갔다.

나는 화가 끓어올랐다. “엄마” “농구 놀이는 이제 끝이야.” 어머니

는 몇 발짝 옮겨가더니 직업선수의 석 점짜리 지점에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받쳐 든 공을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골대를 향해 던졌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진짜 그렇게 높이 슛을 날리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 그 공은 깨끗한 포물선을 그리며 링 속에 꽂히면서 체인망 속을 힘차게 뚫아들었다. 나와 아버지가 어머니 뒤를 쫓아다니느라 허덕거리는 동안 그녀는 오후 내내 계속해 슛을 쏘아올렸다. 우리가 운동장을 떠나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그녀의 팀이 챔피언이 됐을 때의 사진 앨범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나는 그 앨범을 내 방의 탁자 위에 몇 년 동안 얹어두었다. 그 탁자 위에는 내가 잡지에서 오려낸 농구 스타들의 스크랩북이 쌓여 있었다. 바블호킨 그리고 조지(아이스 맨)그빈 등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과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것이 나에게는 수수께끼였다. 어머니는 그녀 자신을 공개적으로 과소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아버지 얘기를 들먹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버리는 요령을 부렸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 얼마나 우수한 학생이었던가를 매일 밤 내가 숙제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러주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자신을 채찍질해 가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얘기해 주었다. 아버지는 동양인인데도 영어도 서툴렀기 때문에 “미국 의사보다 일을 두 배로 해야 했다.”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대한 순수한 존경심의 표현으로 그리고 어머니 특유의 참지 못하는 공치사로 지나치게 아버지를 치켜세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아버지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고 그녀는 노심초사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빛나는 새벽 빛이요 바위 같은 든든함이요 고독한 사람이었다.

엑스터로 떠나기 전 바로 그 해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성공을 자

주 들먹거리는 것에 대해 나는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사춘기였고 가정이나 가족에 대한 일이라면 괜히 반항적이거나 짧은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은 어머니가 나의 냉소의 대상이 되었다. 갑자기 어머니의 삶이 나에게 보잘 것 없어 보였고, 어머니의 존재는 항상 한 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마치 어머니는 우리 집 사면 벽 속에 갇혀 있는 사람 같았다. 나는 어머니가 장만한 음식에 대해서도 불평을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일상생활 중에 겪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조차도 나는 점점 참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를 위해 그런 내가 두려웠다. 하루는 어머니와 내가 대판으로 언쟁을 벌였다. 어머니는 은행에서 보내온 월말보고서가 자기 계산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나에게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잘못된 것을 알아보라고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나는 왜 어머니가 전화 못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어리석고 난폭했으며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라고 어머니가 물었다. 어머니는 대부분 한국말로 나에게 말했고 나는 영어로 답했다.

“은행 관리인이지 누군 누구야?”

“뭐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말하고 싶은 것이면 무엇이든.”

“말대꾸가 왜 그런 거야.” 어머니는 울먹거렸다.

“그런 일쯤은 어머니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라고 나는 말했다.

“나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 너도 잘 알고 있지 않아.”

“그러면 연습으로 여기고 해보면 될 것 아냐.” 나는 아무 뜻 없이 대답하면서 한국말을 사용했는데 어머니가 내 말을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어머니의 목이라도 조른 것처럼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고 목도 뻣뻣하게 굳어져

버렸다. 어머니는 당장 나를 때려주려다가 그러는 대신에 입술을 깨물고 이층으로 달려 올라가버렸다.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 그녀의 방문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일생 동안 버릇없는 자식이 아양을 떨어도 어머니의 토라진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못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어머니는 특별히 기분이 좋거나 몸이 괜찮을 때에는 기계를 끌고 부엌에 나와 탁자 앞에 앉아 내가 음식 장만하는 것을 지켜보셨다. 어머니는 밤이고 낮이고 파자마를 입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나의 오래된 파자마였다.

“무얼 만드는지 알 수가 없네.”

“만두 속이야.”

“배추와 야채를 소금에 절이지도 않았구나.”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것 보라고 야채에 물기가 많아 굽기도 전에 만두껍질이 금방 젖어버리지 않겠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어떻게 해보기는 너무 늦었어, 그래도 손 빠르게 다룬다면 괜찮을지도 모르지. 왜 나에게 물어 보지도 않았니” “어머니가 겨우 잠들었으니까 그렇지.”

“나를 깨우지 그랬어.”

“말도 안 돼.” 어머니는 허약해진 허파가 허락하는 한 가장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도움 없이 어떻게 그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나도 모르겠구나.”

“저도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소금에 절이는 일을 잊지 않을게요.”

“그렇다고 소금에 너무 오래 절이지는 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

주 얘기를 나누었다. 목소리의 높이가 그때의 분위기를 대변해 주는데 지금의 이런 정도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이었다. 한번은 내가 만든 감자전 반죽을 점검하고 있는데 불현듯 어머니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자기가 결코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어머니는 어린 나를 멀리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엑스터로 보낸 것이 잘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되어 목청을 높여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반죽을 손가락으로 점검해 보고는 감자가루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래도 내가 엑스터에 갔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어머니의 속마음을 헤아리기는 어려웠지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내 말에 콧방귀를 끼면서 내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사이가 한때나마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얘기 한번 하는 것조차 그렇게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니? 기억해?

어머니는 그 당시 내가 집에 올 때마다 자기를 조금씩 더 무시한다고 믿고 있었다. 어머니는 결코 나를 나무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그러는 것은 수준 높은 새 교육 때문인 것으로 여겼다고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 드려도 어머니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았다. 문제는 교육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학교가 시작되고 채 육주가 되지 않아 나는 어머니를 처음 보게 되었다. 부모님 초청의 날 행사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방문했는데 그때 이미 어머니는 신경질적이었고 나에게 소원해져 있었다. 평소대로 학교 행사가 끝난 다음 우리는 부모님이 머무는 도시 근처에 있는 여관으로 가서 우리 방의 침대 위에 모두 함께 앉았다. 어머니는 슬금슬금 나를 훑쳐 보았다. 우리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내가 무시무시한 새로운 사실이라

도 알아차릴 것처럼 굴었다.

그동안 부모님이 그리웠지만 특별히 어머니가 예상보다 더욱 간절히 그리웠던 것이 나의 은밀한 감정이었다. 모든 학과 공부와, 나보다 뛰어난 친구들과, 혼자 살기 때문에 겪는 수천 가지의 신경질 나는 일들 때문에 나는 완전히 주눅 들어 있었다. 내가 배운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고 학과에 익숙해지려고 애쓰는 동안 벡타이 매는 법이나 익히는 정도였다. 마치 내가 무시무시한 세계 속으로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그것은 나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것이었다.

나는 모텔방이 고즈넉한 것이 좋았다. 어머니는 자기가 왜 이리 멍청한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리시며 허둥지둥 일어나 출입문 가까이에 있는 옷장으로 갈 때까지 나와 아버지는 거의 졸고 있었다. 어머니는 오래된 금속 쿨러를 꺼내어 침대 사이로 끌어다 놓았다. 어머니는 쿨러 뚜껑을 열고 그 속에 든 플라스틱 통들을 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동작은 끝날 줄을 모르는 것 같았다. 하나씩 꺼내보니 접시에 담긴 음식도 무사히 옮겨져 왔다. — 장조림과 김밥. 나는 깍두기가 든 통을 열었다. 방안이 그 냄새로 인해 갑자기 꽃이 만개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특별한 감각으로 느끼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아마 김치 맛을 진짜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일 것이다.) 내가 숨을 깊이 들이쉴 때 침이 흐르면서 동시에 구역질이 나는 그런 특이한 감각이었다. 부모님은 나의 먹는 모습을 몇 분 동안 지켜보고 계셨다. 내가 정말 배가 고픈지 아닌지조차도 확신할 수가 없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요리 그리고 콩 종류를 몇 주 동안 먹고 지내다 보니 나는 갑자기 내가 살아오면서 익혀온 진짜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을 충분히 되찾을 수 없을 것처럼 느꼈다. 나는 먹고 또 먹었으며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너무 빨리 먹은 탓인지 화장실에 가서 토해버리고 말았다. 나는 어질어질했지만 나의 포식에 대한 가

상적인 포만감과 만족감을 느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지만 속으로는 미소 지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내가 집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 의미로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것은 항상 변함이 없었다. 통학 버스를 타고 엑스터에서 로빈 비행장으로 가는 도중이라도 나는 어머니가 준비한 식탁에 배열된 음식을 머릿속에 그려 볼 수가 있었다.

식사를 해야 할 부엌 식탁은 접시들로 넘쳐 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물론 갈비가 있었고 그것을 계절에 따라 오븐에 익히든지 아니면 프라이팬에 구워 장만했다. 고기를 싸먹는 상치쌈, 마늘을 넣은 조개국물에 싱싱한 시금치와 두부를 넣은 된장국, 대구 전유, 잡채, 고추 부추전, 새우 삶은 것, 콩나물, 시금치나물, 무나물, 구운 김, 팔과 보리를 섞어 만든 잡곡밥, 집에서 담근 김치, 내가 알고 있는 오래된 맛이 모두 거기에 있었다. 아름답게 느껴질 만큼 짹짹하고 달짝지근한 맛 중의 맛이었다.

식사를 끝내고 나와 아버지는 학교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다. 나는 아버지가 이해하도록 학교에 관해 충분한 얘기를 드리지 못했다. 아버지는 자기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자주 들먹거리곤 했다. 그분은 영국으로 가서 공립학교의 전통과 교육 방법을 연구했고 그분이 위대한 이튼 출신자들을 얘기할 때는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고 했다.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과일만 깎을 뿐 말참견은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 얘기를 경청하고 계셨다. 잠잘 시간이 되자 아버지가 먼저 잘 자라고 했다. 보통 때 같으면 나는 이른 아침이 될 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다시 친근감이 느껴질 때까지 한 두 시간 동안 나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나에게 키스를 해주고 잠자리가 있는 이층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 며칠 동안은 우리의 대화는 항상 요리 얘기로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점심 때 먹다 남긴 식어빠진 음식에 대해 세세히 따져가며 맛이 어떠했으며 다른 방법으로도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에게 웬만하면 음식 얘기는 그만하라고 사정했다. 좀더 주의를 기울여 그 얘기를 들어주었어야 했는데 나는 그렇지할 못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와 나만 집에 남게 되었다. 우리는 마치 낯 나간 사람처럼 방안을 서성거리곤 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그때 먹던 음식을 가끔 장만해 드렸다. 두 사람만을 위한 음식 치고는 너무 양이 많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되도록이면 모든 종류의 음식을 다 만들어 보았다. 그러나 어느 것 한 가지도 냄새나 색깔이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서도 별로 말이 없었다. 우리는 단지 하루의 생존을 위해 음식을 먹을 뿐이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자기가 즐겨 앉는 의자에 앉아 쌀을 씻으면서 “내가 큰 실수를 했지”라고 영어로 말씀하시던 기억이 났다. “엑스터에 관한 거예요.” “그래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구나. 네가 그때 집에 있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럼 왜 내버려 두었어요?”라고 내가 물었다.

“내가 죽을병에 걸린 줄을 몰랐기 때문이지.”

나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시게 내버려 두었다. 어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털어놓는 것 같았다. 그렇게라도 해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웬지 알아?” 어머니가 목청을 높였다. “너를 위해 그것이 나을 뻔했다. 네가 집에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이토록 나를 좋아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랬더라면 어머니를 나는 더욱 더 좋아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불가능한 이야기야.” 어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저어며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도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실수였다는 것을 가끔 생각해 본다.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어머니와 떨어져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동안 나는 어머니에게 더욱 더 귀중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병세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몇 달 동안의 탈진과 통증 그리고 약물로 인한 몽롱함으로 내가 보기에는 어머니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 가고 있었다. 구월의 어느 날 구름 낀 오후, 뉴햄프셔에 데려다 주었던 열다섯 살 난 소년으로 나를 다시금 그렇게 여기는 증세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갔다.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자 또 다른 신입생이었던 책을 기억한다. 그는 신입생 환영 피크닉에 나와 함께 걸어서 참석했던 학생이었다. 사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기로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 학교 첫날 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쿨러에 음식을 잔뜩 채워 오셨다. 그러나 나는 야외 음식이 준비된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그곳에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다. 물론 나는 그곳에 가고 싶었다. 나는 흥분되어 있었고 두렵고 초조한 심정이라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앞으로 닥칠 일만 생각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동의해 주셨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부모님을 자동차 있는 데까지 배웅해 드렸다. 그 자리에서 안녕이라고 인사하기 전 나는 아마 부모님을 끌어 안았을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느 날, 아버지는 집이 있는 시라쿠스를 향해 먼 거리를 운전해 오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에게 얘기해 주셨다.

아버지는 자동차를 운전하시느라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매사추세츠 텀 파이크에는 교통이 한산했고 하늘은 어두움으로 덮여가고 있었다. 두 시간이 넘도록 운전해 오는 동안 그들은 한마디의 대화도 없

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어머니에게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이를 악물고 소리를 죽여 가며 내는 소리였다. 마치 어머니 속에 들어 있던 것이 갈아 부수어지면서 새어 나오는 소리 같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라고 아버지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잿빛 얼굴이 되어 아버지를 쳐다보며 눈물을 쏟고 있었다. 아버지도 따라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동차를 턴 파이크의 좁다란 가장 자리에 정차시켰다. 약 반 시간 동안은 그들은 그렇게 자동차 속에서 보냈다. 무심한 자동차들이 추위 속에서 밤을 재촉하며 그들 옆을 부르릉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가끔 어머니가 생각 날 때마다 홀로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 어디쯤을 달리고 있다. 황혼 무렵 자동차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고 문이 둘 달린 부모님이 타시던 파란 올스모빌이 길옆 가장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보인다. 내가 그들을 지나쳤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거울 속에서 그들을 다시 볼 수가 있다. 두 사람은 자동차 앞자리에 가까이 붙어 앉아 있다. 그들은 잠자는가? 입맞춤 하는가? 그들에게 아무일 없는가?

■ 알림 : 프린스턴 대학 영문학 교수로 재직 중인 이창래 교수의 수필 『COMING HOME AGAIN』이 1996년 『THE BEST AMERICAN ESSAY』에 실린 것을 미주문협 수필분과위원회 강치범 위원장이 2003~2004년 회계년도 수필토방 교재로 쓰기 위해 원문을 한글로 번역해 일곱 번으로 나누어 매월 토방 모임에서 낭독한 것을 모아 이창래 교수의 허락을 받아 미주문학에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배와 웰빙

강정실

세계 보건 기구(WHO)에 의하면 해마다 600만 명이, 다시 말해서 5초마다 한 명이 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흡연은 예방이 가능한 심각한 질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20년 후에는 흡연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망과 장애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에이즈, 결핵, 산모의 사망, 자동차 사고, 자살, 살인으로 인한 사망자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흡연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 한다. 그런데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지구촌에는 적어도 20억 명의 흡연자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전 세계 성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이다. 이러한 치사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



부산 출생. 『수필시대』 및 『에세이 문학』으로 등단. 2008년 한국신문예협회 문학상 수필 대상, 2008년 제 20회 국제문화예술협회 수필 금상 수상, 2008년 미주한국일보 사진촬영대회 대상 수상. 한국 및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 및 재미한인사진협회 회원.

는 이유가 무엇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현재 담배 회사들은 그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때문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은 담배 회사들이 올리고 있는 엄청난 액수의 이윤에 비하면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만도, 약 18만 개비의 담배가 매일 담배 공장의 생산 라인을 빠져 나오고 있다. 세계 전역에서 담배 회사와 정부의 전매 기관들은 해마다 7조 개비 이상의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WHO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담배는 죽을 때까지 중독되어 있게 하는 양의 니코틴을 함유하도록 교묘하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그렇다. 담배는 이유 없이 끊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담배를 피우면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흡연은 생명을 위협하는 25가지 이상의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예를 들면, 흡연은 심장발달, 뇌졸중,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여러가지 암, 폐암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다. 물론, 여러 해 동안 흡연을 한 사람이어야 이러한 질병에 걸릴 것이다.

또 있다. 흡연은 입에서 냄새가 나고 치아가 얼룩이 지며 손가락이 누렇게 변한다. 남성들에게는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기침을 하고 숨이 가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흡연자들은 얼굴에 일찍 주름살이 생기는 것을 비롯하여 피부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

몇 년 전까지 흡연자는 특정구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거의 흡연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간접흡연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도심 한가운데나 공원, 심지어 바닷가에서도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흡연자와 결혼한 비흡연자는 비흡연자와 결혼한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위험성이 30%나 더 높고, 흡연을 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는 흡연자가 없는 가정의 자녀보다 폐렴이나 기관지염에 걸릴 가능성이 5배나 더 높기 때문이다.

임신부가 흡연을 하는 것은 배속의 태아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담배에 들어 있는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여러가지 위험한 화학 물질이 임신부의 혈류로 들어가서 자궁 속에 있는 아기에게 직접 전달된다. 그 결과, 자연 유산이나 사산이나 유산 사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욱이 어머니가 임신 중에 흡연을 하면 아기가 유아 급사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세 배로 높아진다.

담배를 끊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흡연을 하는 데 많은 돈이 든다는 사실이다. 세계은행이 실시한 한 연구에서 추산한 바에 의하면, 흡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건강 문제로 해마다 약 35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지출된다. 물론, 그 수치에는 담배로 인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통과 통증을 겪음으로 치르는 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흡연자 한 사람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을 계산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담배를 사기 위해 하루에 지출하는 금액에 365를 곱하라. 그러면 1년 동안 지출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값이 나올 것이다. 그 값에 담배를 피운 연수를 곱하면 담배를 사기 위해 지출했던 총비용이 나온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를 보면 스스로 놀라게 될 것이다.

담배 연기에는 4000여 가지 화학 물질로 이루어진 타르가 들어 있다. 이 화학물질 가운데 43가지는 암을 유발한다. 그 가운데는 시안화합물, 벤젠, 메탄올, 아세틸렌 등이 있다. 담배 연기에는 또한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가 들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독성을 함유한 기체

이다. 하지만 담배와 주요 유효 성분은 중독성이 강한 물질인 니코틴이다.

이런 것을 아는 담배 업계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타르와 니코틴이 적게 함유된 담배. 일명 ‘라이트’나 ‘마일드’이다. 하지만 타르나 니코틴이 적게 함유된 담배로 바꾸어도 이전과 동일한 양의 니코틴을 갈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순한 담배로 바꾼 흡연자들은 대개 부족한 양을 보충하기 위해, 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된다. 또한 담배 연기를 더 깊이 더 자주 빨아들이거나, 담배를 한 개비 한 개비 피울 때마다 더 오래 피우려고 하게 된다. 것처럼 부족한 양을 보충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얻는 건강상의 유익은 담배를 완전히 끊음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에 비하면 아주 적다는 사실이다.

파이프 담배와 엽권련은 어떠한가? 담배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파이프 담배와 엽권련을 신분의 상징으로 이용해 왔다. 이 파이프 담배와 엽권련에서 나오는 연기도 보통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와 마찬가지로 치사적이다. 흡연자들이 엽권련이나 파이프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술과 입과 혀에 암이 생길 위험성 증가하게 된다.

연기 없는 담배는 안전한가? 연기 없는 담배에는 코담배와 씹는담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코담배는 가루담배로서, 대개 캔이나 주머니에 포장되어 판매된다. 흔히, 사용자들은 아랫입술이나 볼 안에 코담배를 넣는다. 씹는담배는 담배로 만든 여러 개의 기다란 가닥이 대개 주머니에 포장된 상태로 판매된다.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담배는 빨지 않고 씹는다. 코담배와 씹는담배는 모두 구취, 얼룩진 치아, 구강암과 인두암, 니코틴 중독,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입 속의 하

안 염증, 잇몸과 치아가 분리되는 현상, 치아 주위의 뼈가 손실되는 증상 등을 유발한다. 담배를 빨거나 씹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대체하는 현명한 방법이 아님이 분명하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시험삼아 담배를 피워 본 젊은이 4명당 1명이 결국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시험삼아 코카인과 헤로인을 사용해 본 사람들이 중독되는 비율과 비슷한 것이었다. 청소년 흡연자 가운데 70%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만, 중요한 것은 담배를 끊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통계이다. 이런 중독성의 위험을 미연방 상원의회에서는 담배를 식품의약국(FDA)이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2000년부터 상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담배를 '약품'으로 분류를 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담배회사들은 담배를 시중에 팔기 위해 FDA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 FDA는 타르와 니코틴 등 각종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담배를 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담배를 피운 지 20분도 채 안 되어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진다. 일주일 후에는 몸에서 니코틴이 없어진다. 한 달 후에는 기침, 동울혈, 피로, 숨이 가빠지는 증상 등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5년 후에는 폐암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50% 줄어든다. 15년 후에는 관상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담배를 피운 적이 전혀 없는 사람과 같은 정도로 떨어진다.

또한 입맛이 좋아진다. 구취가 없어지고 몸과 옷에서 나던 쾌쾌한 냄새도 사라진다. 더는 담배를 사는 수고를 하거나 담배를 사기 위해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성취감도 느끼게 된다. 자녀가 있다면, 자연적으로 자녀가 담배를 피우게 될 가능성을 줄여 줄 것이다. 또한 아마 더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담배를 끊기에는 때가 너

무 늦었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일찍 끊을수록 그만큼 더 좋은 것이다.

하지만 담배를 끊기란 정말 쉽지 않다. 담배를 끊으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담배를 끊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담배에 들어 있는 니코틴이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기 때문이다. “향정신성 약물에 중독성 순위를 매겼더니, 니코틴이 헤로인과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WHO에서는 알려 준다.

니코틴은 헤로인이나 코카인과는 달리, 취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힘을 과소평가하기가 쉽다. 덕분에 사람들은 니코틴이 유발하는 부드러운 도취감을 반복적으로 맛보기 위해 계속 담배를 피우게 된다. 그렇다. 니코틴은 실제로 기분을 바꿔 준다. 니코틴은 불안감을 덜어 준다. 하지만 담배를 피울 때 긴장감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갈구했던 니코틴이 충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담배를 끊기가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는, 흡연이 동작을 수반하는 습관이기 때문이다. 흡연자는 니코틴에 중독될 뿐만 아니라, 담배에 불을 붙여서 연기를 빨아들이는 행동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그러한 동작에 몸이 배게 된다. 따라서 손이 심심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을 수가 없다거나 시간을 때우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담배를 끊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세 번째 요인은, 담배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담배 업계에서는 흡연자를 멋있고 활동적이며 건강미가 넘치는 지적인 사람으로 묘사하는 광고에 해마다 거의 100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흔히 그런 사람들은 말을 타거나 수영을 하거나 테니스를 치는 등 멋진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영화와 TV 프로그램에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나오는데, 언제나 악한 사람만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다. 담배는 합법적으로 판

매되고 있으며 거의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우리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서 결코 떨어져 있지 않고,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고, 아스피린으로 두통을 없애듯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을 없앨 수 있는 알약은 없다. 담배를 끊는 어려운 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동기가 있어야만 한다. 체중을 줄이는 일과 마찬가지로, 담배를 끊으려면 오랫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공해야 할 책임은 담배를 피우는 당사자에게 있다.

언제쯤 담배가 없는 세상을 볼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날이 있기는 할까?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한 웰빙의 의미는 담배가 사라지는 그 날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인내의 꽃

고정희

영하의 날씨에나 눈이 오는 아침에 뜰에 핀 팬지꽃을 본 적이 있는가?

추운 겨울 아침, 얼음으로 온통 라미네이팅 되어버린 팬지의 모습을 처음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꽃들이 추위에 이미 얼어 죽은 줄 알 것이다. 누가 얼음에 뽕뽕 언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하지만 팬지꽃을 심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은 그들에게 늘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임을 곧 알게 된다. 그렇게 얼어 있다가도 햇살을 받은 얼음이 녹아내리는 정오 즈음이면 마치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온몸에 하얀 물안개를 피우며 다시 살아나는 모습은 언제 보아



경북 예천 출생. 『문예운동』 수필로 등단. 중·고교 교사 역임.
재미한국문인협회 회원/에트란틱 문예시론 회원.

도 놀랍고 경이롭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라는 꽃말을 가진 팬지는 여리고 고운 자태와는 달리 강한 꽃이다.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며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는 오기가 강한 인내의 꽃이다. 그래서인지 팬지는 이제 여기 미국땅 조지아에서도 겨울꽃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한 것 같다. 가을이 오면 동네 트랙에 심어지는 꽃은 온통 팬지 일색이니 말이다. 하지만 나는 겨우내 혹한의 고통을 견뎌내고 얻은 그들의 그 자리가 대단하기보다는 애처롭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삶이 현지인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과 참으로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실지로 팬지는 북부 유럽, 시베리아가 고향인 꽃이다. 어쩌면 그들도 나처럼 이 미국에 정식으로 이민을 왔거나,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집 속에 숨겨져 이 땅에 왔는지도 모르겠다. 척박한 시베리아의 벌판에 살다가 온 그들도 나처럼 이 풍성한 대지를 본 느낌이 놀랍고 기대에 차서 흥분할 정도였을까? 남의 땅에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고통이 따르는 줄도 모르고 낯선 바람, 낯선 공기, 풍요로움이 넘치는 흙냄새에 호기심의 눈을 반짝거리며 짐을 푸는데 주저하지 않았을까? 아, 이방인으로 와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만 신중히 생각했어도 내 겨울은 그리 길지 않았을 터인데...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 삶이 늘 겨울 같았던 이민 초기. 몰라서 용감하고 겁 없었던 혈기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의 기회 앞에 망설이지 않았다. 그때는 도전하지 않은 삶이란 초라할 뿐이라 생각했었다. 성공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며 미국이라는 욕망의 전차에 서슴없이 올랐다. 그리고는 내 도전에 대한 마음은 언제나 사치스러운 환상 속에 가리어져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여차하면 되돌아가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까지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은 이방인에게 냉정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풍요로운 땅에 살기만 해도 쉬이 성공하리라 생각한 대가는 컸다. 우선 마음대로 의사 전달도 못 해 손짓발짓까지 하는 내가 마치 바보 같았고 그런 나를 한심하게 지켜보는 그들의 표정에 비춰진 초라한 내 자신이 밉기만 했다.

안일했던 지난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고 후회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러다 펄쩍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삶은 벌써 강줄기를 타고 저만치 아래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고 속도를 내며 내려가고 있었다. 되돌아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저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기에 급급했다. 애초에 꿈꾸던 삶을 위한 목표는 세울 엄두도 못냈다. 그럴 아무런 힘도 내겐 없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경력, 자격증은 휴지 조각일 뿐이었고 그저 몸으로 하는 막노동, 그밖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고통이 매일 나와 함께 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그냥 도망을 치며 고통을 피해 다녔다. 절망과 후회가 날 어둠으로 몰았다.

누군가 절망의 끝에는 희망이 있다고 했던가? 밀리다 밀리다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지자 오기가 생겼다. 성공해서 나중에 한번 내 자신에게 큰소리치며 내 선택에 큰 후회는 없었노라 이야기 할 날이 오게 하고 말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밀려오는 고통 속으로 용기를 내고 걸어 들어갔다. 마침 쑥쑥 자라는 어린 내 아이들은 내가 일어설 이유가 되었고 용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었다.

그 후로도 한참 고통은 늘 내 언저리를 맴돌며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고통이 끝나리라 믿고 인내하며 고통이 오는 대로 그대로 걸어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더 씩씩해졌고

피하고 싶기만 하던 고통에도 친숙해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고통은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어 한번 겪어 본 일은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며 차츰 사는 것이 수월해지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을 많이 겪을수록 무사한 범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 고통이 친구처럼 편해질 즈음 내 가슴에 불을 질렀던 부질없는 욕망도 빛을 잃어갔다. 차츰 내 인생에도 봄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어느 수도자가 “고통은 하느님의 은총”이란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고통은, 그것을 무사히 견뎌낸 자만이 알아챌 수 있는 알찬 결실의 열매를 고통의 끝에 매달아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희생만큼의 대가를 언제나 지불한다. 마치 뜨거운 불에 달궈진 쇠일수록 더 단단해지고, 극심한 추위를 겪은 겨울 뒤에는 병충해가 적은 여름을 맞이하게 되며 고통이 심한 아픔을 겪은 자는 겸손과 건강에 대한 감사함을 알게 되듯이 말이다.

이민생활의 힘든 날들을 견뎌내고 이제 제법 연륜이라는 튼튼한 뿌리를 내린 지금, 안일했던 어떤 시간보다도 고통을 겪고 난 뒤 가르쳐 준 많은 교훈들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 또한 고통을 인내한 뒤의 은총이 아닐까 싶다. 그러한 은총은 겨우내 혹한의 고통을 견디어 낸 팬지에게도 예외는 없어 봄바람을 타고 다른 연두빛 생명들이 하나 둘씩 여린 떡잎을 키우며 땅 속에서 솟아오를 때 그들은 추위에 낮게 움추렸던 몸을 펴고 따스한 봄의 향연의 주인공이 된다. 다양한 빛깔의 꽃잎들은 겨우내 튼튼히 단련된 뿌리에서 보내주는 영양분을 먹고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피어나고 잎들은 키를 훌쩍 키워 온 뜰을 가득 채우며 가장 먼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빗장을 여는 안주인이 된다. 그들은 고통을 인내한 대가로 겨울만이 아니라 봄의 정원을 독차지하는 은총을 신에게 선물받은 것이다.

벌써 처서가 지난 뜨락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 이제 머잖아 대지 위에 찬바람이 불면 화려하게 꽃을 피우던 봄꽃들은 식어버린 햇살에 기운을 잃으며 삶을 정리할 것이고 동네에는 팬지꽃이 또 가득히 뜰을 장식할 것이다. 그들은 다가올 새로운 봄을 위해 또 다시 그 겨울을 인내하며 꽃을 피울 것이다. 그리고 내년 봄에도 그 다음에도 인내하는 자의 뜨락에는 더 한층 풍성한 봄이 찾아 올 것이다.

소나기

김태영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심상찮은 구름을 바라보고 있던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니라 ‘이것이 캘리포니아의 여름 비다’ 하는 듯이 짹짹 갈라지는 새빨간 번개 속에서 마구 퍼부어지고 있었다. 의자를 가게 앞에 내놓고 앉아 비를 구경한다. 놀란 사람들이 자동차로 달려간다. 차들이 빠져나간 빈 파킹랏에 물이 방방히 차올랐다.

“고등학교 때 보고 처음 보네요. 1960년이었소. 전교생이 운동장에 나가 춤을 추었지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음악을 틀어 주었다니까요.”



전남 출생. 『초록반 아이들』(김영사), 『꿈꾸는 황금사자별』(현암사), 『나도 별이 될게요』(현암사), 『철학 동화시리즈』(고려원), 『초롱이』(샘터사), 『아기씨 꽃씨』(현암사) 등을 썼음.

이 도시의 토박이라는 노신사가 함빡 웃으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나도 비를 너무 좋아해요. 아마 내 몸의 물기는 모두 어릴 적 맞은 빗물이고 내 키가 이만큼 자란 것도 뜨거운 여름날 맞은 소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만난 우리가 오랜 연인 마냥 다정하게 얘기한다. 비는 우리들의 마음을 적시고 서로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고 있다. 허지만 내 염려에고 불구하고 소낙비는 곧 그치고 말았다. 자동차가 하나 둘, 물기어린 등을 반짝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한다. 어제와 똑같은 오렌지 빛 태양이 비의 흔적을 사정없이 걷어가고 있다.

나는 아직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깨고 싶지 않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마냥 섭섭하기 짝이 없는 데다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고가는 무심한 얼굴들이 나를 외롭게 한다. 누군가를 붙들고 황홀했던 순간을 뒤돌아보고 싶다.

스타인 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에는 거북이가 죽을 힘을 다해 물을 찾아 길을 건너가고 있다. 양편엔 가뭄에 말라버린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내가 사는 캘리포니아 중부지방의 당시 모습이다. 이곳은 세계적인 농장지대다.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지만 수로시설이 잘 돼 있어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름만 되면 나는 사막을 건너는 거북이 마냥 목이 마르다. 비 없는 여름을 살아내는 일은 나에게는 먹고사는 일보다 힘이 든다.

가게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왔다. 비의 잔상이 느닷없이 왔다. 사라진 사랑하는 이의 여운처럼 남아 몸에 힘이 쭉 빠졌다.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월간문학을 뒤적었다. 수필 한 편을 읽는다. 내 고향 사투리가 질펀하게 녹아 있어 재미있다.

‘게다가 작가 이름이 진승표라니... 그의 형 이름은 승태가 아닐까?’

주소와 전화번호도 나와 있다. 보리밭을 지나가는 초록색 바람이 가슴 속에 휘몰아친다. 노란 산나리 흐드러진 동산에 쏟아지던 그 날의 소나기...

그 해 여름, 여자중학교 3학년이었던 나는 편지 한 장을 들고 버스를 탔다.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모임에서 만난 승태 오빠가 연애편지 비슷한 걸 자꾸 보내왔다. 내가 보고 싶어서 대학입시에 실패할 것 같다는 것이다. 기숙사에서 역시 입시공부를 하던 나는 주말에 오빠를 찾아가 깜짝 놀라게 해주기로 한 것이다. 오빠는 동네에서도 한참 더 올라가야 하는 산밑 외딴집에 살고 있었다.

탱자나무 울타리에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나풀거리고 있을 뿐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햇살에 하얗게 바래지고 있는 마당이 눈이 부셨다. 그 혼한 매미도 울지 않는 빈 집은 너무나 조용했다. 그래서 전생애 내가 살던 집에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떠올랐다. 분필 칠까지 한 새하얀 운동화를 맥없이 내려다보고 있을 때 뒤에서 걸걸한 목 소리가 들렸다.

“누구여?”

“승태 오빠!”

무안하니 괜히 톤이 높아졌다. 학생복 차림에 지계를 지고 들어오던 그가 엉거주춤 서서 고개를 들었다.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얼굴이 새빨갳게 달아올랐다. 나는 그의 이름표를 보았다. 진승표였다. 승태보다 키가 훌쩍 큰 참 잘생긴 얼굴이었다. 헛간에 지계를 부리고 나온 그가 대뜸 악수를 청했다.

“형은 과외공부 시키러 가서 집에 없어. 안됐네. 나 승태 동생이야. 네 얘기 들었어.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 형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걸. 넌 형한테 첫사랑이거든.”

‘사랑, 내가?’ 갑자기 하늘이 빙그르 돌았다. 나도 모르게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밀어버린 것 같은 위태로운 기분이 들었다. 그는 싱글 벙글 웃기만 했다.

“배고프지?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개떡은 언제나 먹을 수 있어. 가자 내 성지로.”

알루미늄 도시락에 보리밥이 우둘두둘 묻은 쭈개떡을 담아 들고 나온 그가 나를 뒷동산으로 이끌었다. 맹감나무 줄기가 오솔길을 막고 자라고 있다. 길을 내며 앞서가던 승표가 실개천으로 내려갔다.

“여기가 가제가 젤 많은 곳이야. 가제가 진주 키우는 거 알아? 내가 하나 빼서 감추어 두었어. 너 줄려고.”

승표는 바위 밑에서 예쁜 돌 하나를 꺼내와 내 손바닥에 놓아주었다.

“이담에 반지 만들어 가져. 알았지?”

나는 진주라는 그 돌을 꼭 쥐었다. 돌이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성지라니, 거기가 어디?”

“나만 따라와 봐.”

주거니받거니하며 산나리 만발한 산길을 오르다 보니 꼭대기에 도착했다.

“여기 앉아 봐. 고백할 게 있어.”

우리는 넘적한 바위에 나란히 앉았다. 올망졸망한 초가지붕을 맞대고 있는 작은 마을과 미루나무 줄 지어 선 신작로, 초록 물결 잔잔한 보리밭이 아스라이 보였다.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승표는 열 살 무렵부터 지계를 졌단다. 땀나무를 해오는 것이 그의 몫이었다. 가문의 희망인 형은 공부만 하면 되었다. 그는 산에 올 때마다 꿈을 꾸는 법을 배웠다. 훌륭한 작가가 되겠노라 바위에 맹세도 했다. 자라면서 새로운 소원이 생겼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바위에 얹혀놓고 꽃으로 만든 왕관을 씌워주는 것, 그리고 자기의 발자취

를 따라 산을 구경시켜 주는 소년다운 바램이었다.

“너를 처음 본 순간, 형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되었어.”

나는 승표가 정성을 다해 만들어준 화관을 쓰고 쭉개떡을 먹었다. 내가 먹어본 떡 중에서 가장 맛있는 떡이었다. 손 가득 따온 산딸기로 후식까지 먹으니 백설공주가 따로 없었다. 산도라지, 비석 없는 무덤가에 핀 할미꽃, 향긋한 취나물, 그가 사랑하는 것들에 눈길을 주며 그를 따라 산을 구석구석 돌아보았다.

“아무 변화 없는 가난한 농촌에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더구나 수재인 형 밑에서. 꿈이 없었다면 난 벌써 가출했을 거야. 이제 난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두고두고 널 기억할 거야. 너도 날 기억해 줄래? 약속할 수 있어?”

그가 내 손을 잡으려고 할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호랑이 장가간다는 소낙비였다. 우리는 마구 달렸다. 바위에 당도했을 때 울다 웃는 아이마냥 비가 똑 그쳤다. 바위에 나란히 누워 젖은 몸을 말렸다. 유난히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내 마음도 몸도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생각해 보면 아무일도 없었는데 그 일이 있는 다음, 나는 부쩍 자랐다. 매사에 깊이 생각하는 버릇도 생겼다. 승태오빠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 날 이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진승표, 그가 준 돌멩이는 내 집 어디에 지금도 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오늘의 소나기가 그와 나 사이에 길을 내준 것은 아닐까?

나는 지금 전화번호를 앞에 놓고 생각게 잠겨 있다.

따로 또 함께

이정아

여고동창이자 대학동창인 조 선교사는 시애틀 O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다. 그녀의 전직이 성형외과 의사였으니 세상의 잣대로 보면 희한한 일이다. 서울 명동에서 개업을 하던 돈도 썩 잘 버는 의사였는데 그걸 과감히 접고 열악한 환경인 아프카니스탄의 선교사가 된 것이다. 작년에 아프카니스탄의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때, 조 선교사는 선교보고차 미국에 나와 있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 현재 아프카니스탄에는 한국인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2003년부터 잘 담아놓은 선교의 기반을 포기하고 이번엔 파키스탄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며칠 전 선교 세미나를 인도하러 엘



한국수필 등단. 수필집 『낮선 숲을 지나며』, 『선물』. 해외 한국 수필 문학상, 미주 펜 문학상 수상. 홈페이지 <http://bsle.kil.co.kr>

에이에 왔기에 친구들 몇 명이 모여 함께 밥을 먹는데, 얼굴만 보아도 가슴이 먹먹하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였다. 미전도 종족의 선교라는 거룩한 뜻이 아니어도, 평범히 사는 나 같은 이에게 잘 사는 것이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산 증인인 셈이다. 유머가 뛰어나고 재미있는 아이였는데, 이젠 친구 같지 않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정기 책업을 간 병원에서 주치의가 다 죽어가는 얼굴로 말한다. 사는 게 고난의 연속이라나? 지난번 환자와 분쟁 때 편지를 대필해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료사건이 아닌가 짐작했다. 그런데 이 유를 들어보니 가관도 아니다. 어제 퇴근하려고 보니 자신의 벤츠 타이어가 플랫(flat)이 되었더라. 하필이면 도와줄 시큐리티 가드도 없을 때, 하필이면 정비소도 다 문 닫은 시간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더라며 고난을 강조한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안하는 편인 내가 면박을 주었다. “야! 그게 너의 고난이냐? 살면서 늘 일어나는 해프닝일 뿐이야.” 단순히 일진이 나쁜 것에 ‘고난’을 대입한 그녀에게 공연히 화가 났다. 그게 고난이면 난 열두 번도 더 순교했겠다.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동창문집에 실릴 글에 자신이 헐리웃 배우 댄젤 워싱턴(Danzel Washington)과 친하고 환자였던 모로코 왕자의 초청을 받았다는 걸 굳이 강조해서 써 달랄 때, 아직 소녀 같은 친구라는 걸 파악하긴 하였지만 말이다. 한국말이 서툰 친구는 “철분을 좀 섭취하라.”는 내 조크를 다행히도 못 알아들었다.

같은 날 정신과 의사인 한 친구는 왜 동기모임을 정기적으로 안 갖느냐며 전화를 하여 따진다. 선교사인 친구와는 강연 사이에 잠깐 틈을 내어 얼굴을 보는 모임이었고, 내 주치의는 환자의 입장에서 방문

한 것인데, 마치 자신을 왕따시키는 듯 오해를 하는 것에 황당했다. 내가 모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도 않건만, 한가로이 동창모임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있는 그 친구가 오히려 부러웠다. 생활의 리듬을 깨는 모임들이 불편하고 귀찮은데 말이다.

그와 비슷한 취지로 말을 하니 냉정한 사람, 예의 없는 사람으로 단정을 짓는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에게 그런 평을 들으니 기분이 언짢긴 하였으나, 한편 정신과 의사의 말이니 마음에 자꾸 걸린다. 내게 ‘따스함과 예의’가 많이 부족한가?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이 오십을 넘어 인생의 하프 타임에 이르니, 어떤 친구는 남편과 사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사업이 파산하여 어려움을 겪은 친구도 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나 같은 이도 있고 남편의 와병으로 고민하는 친구도 있다. ‘사별’이니 ‘이혼’이니 ‘파산’이니 ‘건강문제’니 간단한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과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서로 큰 도움이 못 되는 것이 가슴 아프다.

사실을 말하자면, 공적인 모임에선 하지 못할 말도 마음이 맞는 이 들끼리 허심탄회하게 풀어 놓다보면 절로 치유가 되는 만남이 더 편하다. 가끔 우리 사무실의 뒷방이 고민을 토로하는 사랑방의 역할을 한다. 교우들도 친구들도 자리를 자주 못 비우는 나를 배려(?)하여 사무실로 들르곤 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지만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한다. 앞 못 보는 맹인이 밤중에 등불을 밝히고 다니는 것은, 남들로 하여금 피해 지나가라는 뜻이 있다고 들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충돌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지혜가 동시에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남을 위한 마음으로 등불을 밝히고 살면 서로가 밝아질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홀로 선 나무이자, 홀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산 넘어 산이다. 그러나 서로가 뻗친 가지에 의지하여 숲을 이루어가는 것도 또한 삶일 것이다. 정기모임이 아니더라도 가끔 정신과 의사인 친구를 초대하여 공짜 카운슬링도 받아봐야겠다. 쓴 소리도 고마운 나이가 되어가고 있음이 대견하다.

좋은 친구는 축복

정찬열

늦은 밤,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좋은 친구와 마주앉아 따끈한 차 한 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의 얼굴이 한 사람씩 떠올랐다.

느지막이 목사가 된 Y가 생각났다. 서울 산동네에서 자그마한 개척 교회를 일구고 있는 친구. 발그레한 그의 얼굴과 함께 내 풋풋했던 시절이 함께 스쳐지나갔다.

대학에 합격하여 짐을 싸들고 서울에 올라가던 날. 날씨는 또 왜 그리 추웠던지. 마땅히 갈 곳이 없던 나는 당시 대학에 다니던 그 친구의 자취방에서 며칠만 머물기로 했다. 막상 가보니 둘이서 돌아눕기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에 시부문 입상. 남부한국학교 교장. 미주한국 문인협회 이사. 저서로는 산문집 『쌍코뿔이를 아시나요』(2006년, 고요 아침)가 있다. <http://myhome.mijumunhak.com/chan>

도 힘든 작은 방이었다.

학교에 다니면서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겨우 일거리는 구했지만 먹고 자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훌쩍 두 달이 지났다. 친구는 걱정 말고 함께 지내자고 하지만 그의 어려운 사정을 뻔히 아는 내가 그럴 수는 없었다. 해가 늙었하면 이 넓은 서울에 작은 몸 하나 편히 누일 수 있는 방 한칸이 없다는 생각에 쓸쓸함이 몰려오곤 했다. 저녁 늦게 터벅터벅 산꼭대기 자취집에 도착하면 친구는 아랫목에 묻어 두었던 밥을 차려 내왔다. 어느 날 마침 버스표가 떨어져 한 시간 넘게 걸어서 온 일이 있었는데, 그 후 본인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처지에 버스표나 용돈을 나 몰래 주머니에 넣어두곤 했다.

친구도 나도 학교를 졸업했다. 작년에 한국에 나간 김에 친구를 찾아갔다. 막 시작하는 교회라 신자가 많지 않았다. 밤새도록 정담을 나누고 떠나오면서, 옛날 용돈을 넣어주었던 얘기를 하며 작은 돈이나마 전해주었다. 나도 친구도 환하게 웃었다.

빗줄기가 굽어지고, 전신줄을 스치는 바람이 쇠 소리를 낸다. 낙엽이 지면 추워질 것이다. 춥고 바람 부는 날, 따뜻한 손을 내밀어 눈보라치는 세상을 함께 헤쳐가자 할 친구가 누구일까.

고도원의 아침편지에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라는 글을 보았다. “당신은 곤경에 처했을 때 부르면 당장 올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언제라도 불쑥 찾을 수 있는 친구, 함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친구, 당신이 어려울 때 선뜻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 없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관계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내 삶의 고비고비에서 도와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20년 넘게 한국학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친구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곁에 있어주었던 얼굴들. 그들이 있어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 그렇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다. 좋은 친구는 서로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고 푸른 하늘을 함께 나는 사람이다. 좋은 친구 사이에는 늘 상승효과가 있다”는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 받은 것은 많은데 준 것이 너무 적다. 외로운 친구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을 건넨 적은 있는가. 배고픈 친구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적이 있는가. 영원히 살 것처럼 움켜쥐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지난날을 반성해 본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도 굽어진다. 늦은 밤이지만, 전화 한 통화면 틀림없이 달려와 줄 친구의 얼굴을 그려본다. 그런 친구가 곁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한 없이 포근하고 행복하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거칠게 뒤 흔들고 있다.

레이디의 새끼 사랑

지희선

더위가 화씨 100도를 넘나드는 이 곳 캘리포니아 리틀락. 우리 집 레이디(저먼 셰퍼드)가 여덟 마리나 되는 새끼를 낳았다. 에미 젖을 빨며 꼬무락거리고 있는 새끼들이 너무나 귀여워 자꾸만 들여다보게 된다.

그런데 다음날, 이 놈들이 어떻게 지내나 싶어 들여다보니 아니, 이게 웬 일? 개 집이 텅텅 비어 있었다. 명색이 사납다고 소문이 난 저먼 셰퍼드가 제 새끼들을 들짐승에게 빼앗겼을 리는 없는데…… 참 이상했다. 새 집부터 시작해서 닭장과 염소, 오리, 거위, 돼지 우리 등 우리란 우리는 다 뒤져도 보이지 않았다. 카터를 타고 급히 농장을 한



1995년 『문학세계』 수필 신인상. 1997년 『수필과 비평』 수필 신인상. 1999년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에 수필 당선. 1999년 『현대시조』 신인상. 2007 『에세이 문학』 천료. 재미수필가협회, 미주시조협회 회원.

바퀴 돌아왔다. 그래도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얼마 후, 창고 밑에서 킁킁대는 소리가 들려 들여다보니, 옆드려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한 낮은 틈새에 시커먼 새끼들이 모여 있었다. 영리한 레이디가 제 새끼들이 더워하는 것을 보고, 한 마리씩 물어다가 여름 피서를 시킨 것이다. 짐승이 영물이라더니 영물은 영물이다.

한, 두 주쯤 지났을까? 외출을 하고 돌아와 보니, 이제 피서가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제법 자란 여덟 마리의 새끼들을 다시 제 집에 들여앉혀 놓았다. 아무리 큰 개집이라도, 아홉 식구가 지내기에는 좀 불편하겠다 싶어 좀더 큰 장소를 물색했다.

이리 저리 찾다가, 부엌 옆에 새로 지은 ‘넨’이 생각났다. 300스퀘어 피트나 되는 ‘넨’은 넓기도 하지만, 지붕도 있고 쿨러가 있으니, 좁고 더운 제 집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다. 어차피 똥, 오줌은 레이디가 훑아서 해결해 주니 오물 걱정은 안 해도 될 터이다. 큼직한 담요를 하나 칸 뒤, 조심스레 한 마리씩 옮겨 놓았다. 등도 하나 켜 주고 밥그릇과, 물그릇을 갖다놓고 보니 훌륭한 보금자리가 됐다.

새벽에 일어나, 궁금해서 창문 밖 ‘넨’을 들여다보니, 아홉 식구가 서로 엉킨 채 곤히 잠들어 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보금자리를 찾았나 보다고 생각하니, 내 집이라도 마련한 듯 흐뭇했다.

그런데 웬걸? 오전 열 시쯤 되어 따가운 햇살이 ‘넨’을 데우기 시작하자, 또 한번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입으로 아래, 위를 다 훑아준 뒤 한 마리씩 물어 시원한 창고 밑 흙집으로 다시 옮겨 놓는다. 여덟 번을 왔다갔다 해야 되니 입심이 풀렸는지 마지막 놈은 물고 가다 떨어뜨렸다. 그래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다시 물어 옮겨 놓더니 저도 새끼 곁에 자리를 잡고 비스듬히 드러눕는다. 새끼들은 이때다 싶은지 킁킁대며 젖을 파고들었다. 올라타다가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젖 빨기에 여념이 없다. 여덟 놈이나 되니, 동작이 느리거나 힘이 없는 놈은 젖

먹기도 쉽지 않다. 제 더위 하나도 견디기 힘들 텐데, 어미가 된 레이디는 아랑곳없이 이런 새끼들을 말없이 내려다 보며 젖을 물리고 있다.

동물을 키우다 보면, 인간보다 훨씬 생각이 깊고 모성애 또한 짙하게 느낄 때가 많다.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도, 새끼에게 머리로 쿵쿵 받쳐가면서도 아픈 내색 없이 젖을 빨리고 있는 어미 염소, 다른 놈들은 먹이를 찾아 넓은 농장을 활개치고 다녀도 새끼를 보겠다고 이 무더위에도 꿈쩍 않고 알을 품고 있는 암탉. 그 중에서도 더위를 견디다 못해 잠시 물을 먹으러 나왔다가 아홉 개나 되는 알을 들쥐에게 다 도둑 맞은 거위의 모습은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애처롭다. 놀라 허둥대며 알을 찾던 거위는 아직도 등지를 떠나지 못하며 꺾꺾 울고 있다.

‘하물며 동물도 저러한데...’하는 생각에 종종 눈시울이 더워지곤 한다. 새끼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본능일진데, 그 본능마저 저버리는 부모가 의외로 많다. 자식 문제마저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는 ‘어른’을 볼 때마다 어른이 된 내가 참 미안하다. 그래서 옛말에 ‘짐승 보다 못한 놈’이라는 호된 꾸짖음이 있었나 보다.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젖을 빨리며 누워 있는 레이디의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대견스럽다.

속 깊은 아이

최향미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전화기를 집어 들었다. 아무리 바빠도 오늘은 꼭 연락해 봐야지 하며 낮부터 벼른 일이다. 같은 교회 구역원인 A집사와 연락이 끊긴 지가 일 년이 다 돼간다. 작년까지는 구역 예배에 늘 참석했었는데 올 들어 그 집 작은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한 번도 오지를 않았다. 전화 연락도 잘 되지 않더니 오늘은 다행히 집에 있었다.

이 년 전에 구역 예배에서 A집사를 처음 만났다. 요즘 유행하는 ‘기러기’ 아빠를 한국에 두고, 자식들 유학 뒷바라지 하러 아이들에 묻혀 온 엄마가 A집사이다. 그녀의 첫 인상은 꽤나 차갑고 도도했다. 하지



2004년 『문학세계』 수필부문 신인상. 현재 <글마루>, <오렌지 글사랑>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생김생김으로는 한국에서 꽤나 배우고 아주 여유있게 생활했으리라 짐작이 되지만 그녀의 언행에서는 겸손함과 소박함이 시간이 흐를수록 묻어 나왔다. 조기 유학을 시키는 한국인 부모들에 대해 막연하게 부정적이던 나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 놓을 정도였다.

대학생인 큰딸과는 달리 고등학생인 작은딸은 구역 예배는 물론 새벽 예배까지 제 엄마와 참석하는 정말 참한 아이였다. 영어권인 제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우리 어른들의 모임 뒤에서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아이의 다소곳함이 정말 예뻐 보였다. 큰 눈망울과 가녀린 몸집으로 눈이 마주 치면 살짝 미소를 지어주던 아이 모습 속에서 그 엄마의 지혜도 보이는 듯 했다. 잘 키우고, 잘 자라주는 유학생 가족이 참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주일 예배 때도 잘 볼 수가 없었다.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하면 작은 아이가 아파서 갈 수가 없었다며 미안해 했다. 다음에는 꼭 참석하겠노라며 밝게 약속하는 그녀에게서 더 깊은 이야기는 들을 수도 없었다. 그러다가 안부 전화까지 뜸해지기 시작했다. 사실은 그동안 아이가 아파서 구역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를 나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작은 핑계일 뿐, 혹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나 가정애 말 못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며 막연한 짐작만 하고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었다. 가끔씩 이른 아침 예배를 마치고 황급히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혼자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었다. 오늘도 이런 저런 상상을 하며 조심스레 안부를 묻다가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렇게 해맑은 인상의 작은아이가 ‘폭식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폭식증이 일종의 정신병이래요. 이곳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지속적인 치료비도 엄청나고 또 이곳보다는 나은 것 같아 한국에 갔다가, 제 고모가 있는 일본에도 갔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치료받으면서 토하는 걸 또 배웠더라구요. 같이 있던 아이들한테서 더 나쁜걸 배운 거죠. 지금은 제 아빠가 근무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아빠랑 치료 겸 요양하고 있는데 이제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어요. 좀더 안정이 되면 미국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 나저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기가 막힌 그녀의 지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가슴이 메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그녀는 늘 그렇듯이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언제나 다소곳하고 눈빛이 맑아 늘 웃고 있는 것 같던 그 아이의 모습이 아른거리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차마 내색할 수도 없었다. 그저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하며 위로의 말을 속으로 찾고만 있었다.

“늘 착하고 얌전하게 아이들이 커줘서, 이런 일로 가슴이 아프게 될 줄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그녀에게 “그래요. 집사님, 작은아이가 이제 부모님과 여러 사람들한테서 더 큰 기도와 사랑을 받으려고 병이 났으리라 생각돼요. 그동안 새로운 미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어른들 걱정할까봐 제 판에는 힘든 내색을 안 했겠지요”라고 말을 했다. 그러자 그녀는 한숨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을 한다. “정말 미국생활하면서 그동안 어렵다는 내색이 없었어요. 늘 잘 견뎌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죠.” 그녀의 자조 섞인 목소리에 나 역시 근 일 년 동안 잘 챙겨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커져 가고 있었다. 아이한테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애써 고통을 안으로 삭이려는 A집사를 보듬어 안아 위로해주고 싶는데 딱히 어울릴 만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집사님, 작은아이가 정말 속이 깊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속으로 삭이다가 병이 났나 싶네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이니까 분명히 털고 일어나서 크게 쓰임 받을 거라고 믿어요. 힘내세요.”

결국 이런 말로 A집사를 위로하고 긴 통화를 마쳤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무심했던 일들이 부끄럽다. 구역 합창 때 싫은 내색 한번 안하고 피아노 반주를 해주느라 애쓴 아이였다. 고맙고 기특해서 맛있는 밥 사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키지 못한 일도 이제야 생각이 난다. 미안한 마음이 자꾸 커진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내가 그 아이에게 붙인 ‘속 깊은 아이’란 말이 였힌 가슴처럼 마음이 답답해진다. 내 입에서 불쑥 나온 ‘속 깊은 아이’란 수식어가 어찌면 새장처럼 또는 텃이 되어 그동안 아이의 입을 막아버린 건 아닐까. 어른들의 칭찬이 결국 아이가 소리 내 말하는 것을 막은 건 아니었을까.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무거워도 내려놓을 수 없었던 아이의 여린 마음이 자꾸 만져진다. 소리 내 끄집어내지 못하고 속으로 깊숙이 숨어버린 병난 아이가 이제는 내 가슴으로 파고드는 것만 같다.

내일 저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한 접시 써서 그녀 집으로 마실이라도 가야겠다. 그래서 딸처럼 속 깊은 그녀랑 ‘소리 내기’가 무언지 같이 이야기 해봐야겠다. 덩석 베어 물은 만두 속이 뜨거워서 눈물이 절끔 나면 그 참에 어깨를 껴안고 같이 펄펄 일어나 봐야지. 내 미안한 마음이란 꼭꼭 참아왔을 그녀의 아픔까지 모두 흘려버리게. 그러면 속 깊어서 병난 어여쁜 그 아이를 환한 웃음으로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